

기상사랑 1

2018. January

www.kma.go.kr **Vol. 439**

신년사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
기상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정책클로즈업

기상청이 함께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상지원!

날씨 + Travel

겨울왕국, 홋카이도 자유여행

열린 정책!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생각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듭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평화’ 최우선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자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

‘상호 존중’의 정신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지향



하늘사랑

2018 January Vol. 439 2018년 1월호(통권 439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1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남재철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신년사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
기상청이 함께하겠습니다 · 02

신년특집
2017년 기상청 10대 뉴스 · 04

정책 클로즈업
2018년 기상청 살림살이 · 06
기상청 날씨전용 웹사이트 '날씨누리' 운영! · 08
기상청이 함께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상지원! · 10

KMA About

열린마당
동기타 선율로 사랑을 전하는 '문화꿈터' 이야기 · 14
영남에 발을 담그다 · 16
돌고 돌아 찾은 곳!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다 · 18
어색하지만 설레는 실무수습의 날들 · 20

KMA 날씨 +

날씨 + 일상 진주 남강 옆 한책방 · 22
날씨 + Book 행복을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
「꾸뽀 씨의 행복 여행」 · 24
날씨 + Travel 겨울왕국, 홋카이도 자유여행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기상청,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32



January



15



21



26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 기상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상가족 여러분.
2017년이 저물고, 희망찬 2018년의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친숙함과 충직, 용맹을 상징했습니다. 올해는 무술의 정기를 받아, 여러분도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새 정부와 국정과제가 탄생한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기상청도 기상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시대의 터전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올해는 기상청이 그동안 마련한 기반을 디딤돌 삼아, 미래와 혁신을 향해 달리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상청은 2018년의 정책목표를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안전·기본·국민·미래·세계’를 5대 핵심가치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 조기경보체계와 지진 분석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국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기상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업무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예보와 관측은 기상업무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예보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정보 제공을 위해 부문별로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될 때, 국민들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기상청은 국민들이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문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플랫폼을 강화해, 기상산업 시장 중심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최근 잦아진 기상이변과 위험기상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작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상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상분석 능력을 높이고, 올해 우주기상 관측용 위성인 '천리안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한반도의 환경 감시 능력을 한층 넓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첨단기상 장비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미래형 기상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상청은 신뢰도 높은 과학적 기후변화정보를 세계 각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제공하여,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를 통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후발국은 이끌며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사판행성(思判行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고 반성하라는 담백하고 명료한 뜻입니다. 기상청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미래의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기상이변과 위험기상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단단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상가족 여러분!
2018년에도 여러분의 가정 곳곳에 웃음과 행복,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1월
기상청장 남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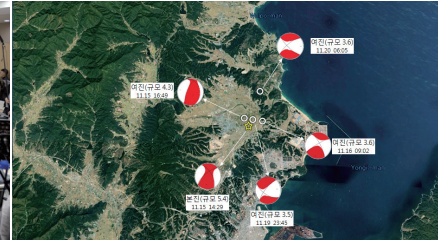
2017 기상청 10대 뉴스

1 경북 포항 규모 5.4 지진 발생 (11.15), 역대 2위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계기관측(1978년)을 시작한 이래 역대 2위로 기록되었고, 경북 지역에서 최대진도 VI이 감지되었으며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76회 발생(2017.12.31. 현재)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지진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발표하고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였습니다.



포항지진 관련 긴급브리핑



포항지진 정밀분석 결과

2 기상항공기 도입 완료

기상청은 14종 25개의 첨단 기상관측장비가 장착 · 탑재된 '기상항공기' 도입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20일 취항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상항공기는 날아다니는 종합기상관측소로서 관측공백지역의 관측,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기상 조절 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종합적 입체관측망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서울 · 부산 관측소, WMO '100년 관측소' 선정

부산 관측소는 1904년, 서울 관측소는 1907년 설립되어,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주관하는 '100년 관측소'에 선정되었습니다. 100년 관측소는 100년 전 설립, 비활동 기간 10년 미만, 환경정보의 보존, 지속적인 자료품질관리, 관측 자료 공개 등의 기준을 통과하여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중국 3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0년 관측소 보유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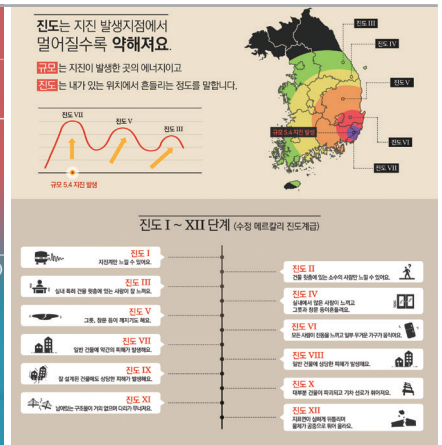
서울관측소



부산관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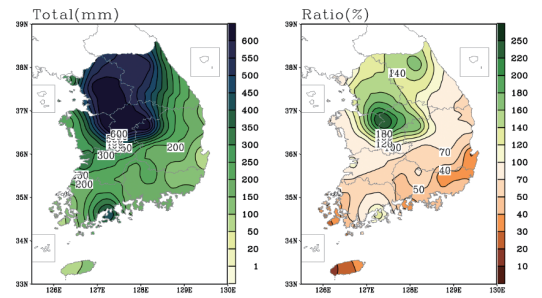
4 개선된 지진 통보서비스 실시

2017년 7월부터 지진정보 종류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상세정보(지진정보)로 구분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속정보는 관측 후 50초 수준이던 '지진조기경보'를 25초 내로 지진속보는 5분 이내에서 100초 이내로 더 빠르게 발표합니다. 신속정보 뒤에는 지진분석사가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인 지진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진 대응에 더욱 효과적인 '진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유관기관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5 2017 장마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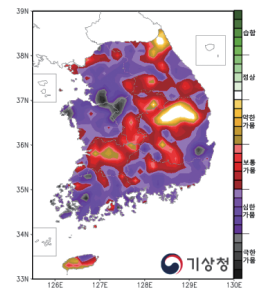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장마를 여름철 동안 장기간 내리는 비로 여기고 있으나, 2017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로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 기간(6.24~7.29) 동안에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크게 확장하여 세력을 유지하였는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수렴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산·경남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큰 시간당 116mm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9.11)하여, 약 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하는 등 장마 기간 외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장마 기간(6.24~7.29) 강수량(mm) 및 강수량 평년비(%)

6 전국적인 가뭄발생 “남부지방 아직까지 이어져”

2017년 봄~여름까지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남부 일부지방(경남, 제주 중심)의 가뭄은 현재 지속 중입니다. 상반기(1.1~6.30)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전국 평년비 48.5%)으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73년 이후 45년간 역대 최저 1위(상반기 기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기상청은 선제적 가뭄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신뢰도 높은 가뭄정보 제공을 위해 '18년도부터 기상 가뭄예보를 시행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가뭄전망 기법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7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2017년 테스트이벤트 대회 기상지원 실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강원도 평창과 정선에서 열린 2017년 테스트이벤트 13개 대회에 기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기상지원인력 65명이 투입되었으며, 경기장별 맞춤형 기상예보 생산, 경기운영자와 현장 소통, 모바일 고층기상관측자료 제공, 평창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기상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8 기상법 개정(4. 18)

항공·해양 기상 관측망의 구축과 기상학적 가뭄 및 기상영향 예보 근거 신설,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보급, 기상업무종사자 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상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86호, 2017.4.18., 시행 2018.4.19.) 되어 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 전 세계가 다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제3차 평창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ICE-POP 2018) 실시

기상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기상지원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연구개발 프로젝트(RDP)와 예보 시범 프로젝트(FDP)의 하나로 2015년부터 평창 국제공동연구(ICE-POP 2018)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 12개국(27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참가국은 평창의 복잡한 산악지형에서 겨울철 기상현상을 상세히 관측하고,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생산된 기상 자료는 올림픽 예보관에게 제공되어 올림픽 경기 운영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겨울철 예보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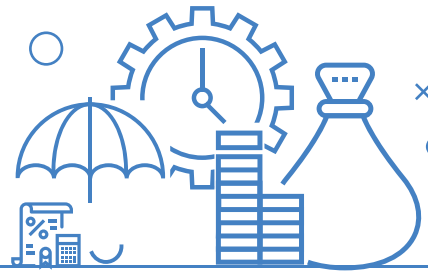
10 국가기상종합정보 페이지 ‘날씨누리’ 대국민 서비스 개시

기상청 대표홈페이지를 행정과 날씨로 분리하고, 날씨 홈페이지(www.weather.go.kr)를 ‘날씨누리’로 명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2017년 12월 27일 정오에 개시하였습니다. 행정과 날씨 콘텐츠가 혼재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 날씨 정보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기상청 살림살이

기획재정담당관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과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중심으로 편성된

2018년도 기상예산을 소개합니다.

(`17년) 3,853억 원 → (`18년) 3,979억 원(전년대비 3.3% 증가)

※세입 92억 원(전년대비 33.9% 증가)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등 안전·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구현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82억 원 → 344억 원)

- 신규사업 :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18억 원,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28억 원

정보통신기술 기반 확충,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 등 4개 사업 (308억 원 → 458억 원)

- 신규사업 : 미래유망 기상서비스 기술 개발 3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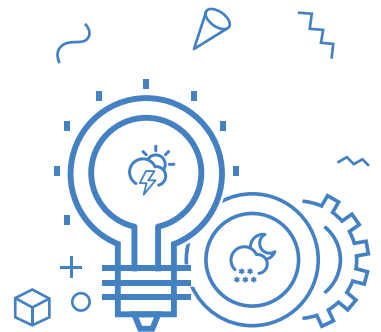
기상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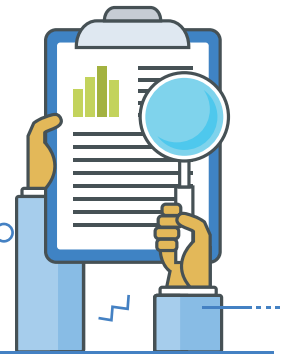
• 기상산업 활성화 : (91억 원 → 97억 원)

-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10억 원 → 14억 원)
 - ※ 성장지원센터 전주기 성장지원 기업 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금 신규 반영(0.6억 원) 등
- 기상정보 활용촉진 날씨경영활성화(4억 원 → 5억 원)
- 기상 예보사·기상 감정사 면허취득 교육과정 개발 및 집체교육 실시(2억 원)

국제역할 강화 및 위상 제고

- 제17차 세계기상기구(WMO) 농업기상위원회 총회 개최(1억 원)
-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개최(기상청 6억 원, 인천시 3억 원)





기상과학 인프라 시설 확대

- 국립기상박물관 공사(2차년도 17억 원)
- 밀양 및 충주기상과학관 공사(2차년도 68억 원)
- 정읍기상기후인재개발체험관 설계(2억 원)
- 서해안기상기후센터 설계(2억 원)
- 여수해양기상과학관 타당성 조사(1억 원)



내·외부 기상교육 확대

-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11억 원 → 12억 원)
 - ※ 기상업무종사자 교육인원 확대(1,600명 → 2,000명)
-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9억 원 → 10억 원)
 - ※ 핵심분야(위성, 레이더, 수치예보) 교육과정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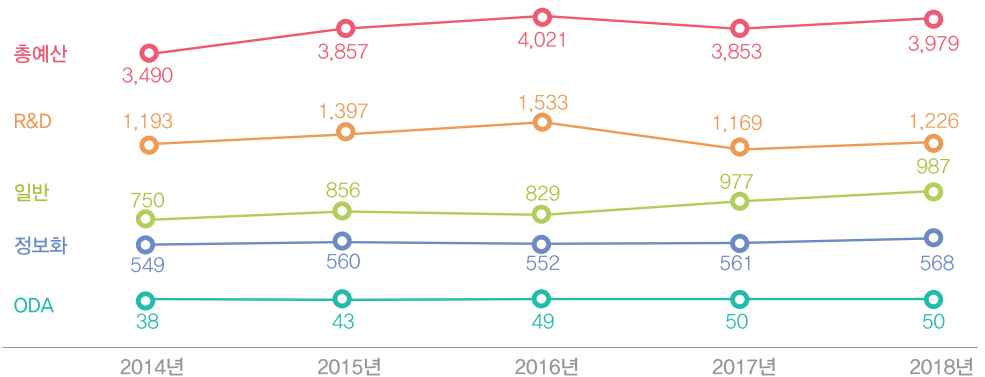
-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144명, 46억 원)
 - 청소원 78명(22억 원), 경비원 23명(7억 원), 시설관리원 43명(17억 원)
-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5명, 4억 원)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변화 추이

(단위: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	750	856	829	977	987	7.1
R&D	1,193	1,397	1,533	1,169	1,226	0.7
정보화	549	560	552	561	568	0.9
ODA	38	43	49	50	50	7.1
총예산	3,490	3,857	4,021	3,853	3,979	3.3



기상청 날씨전용 웹사이트 ‘날씨누리’ 운영!

정보통신기술과

지난 1996년 7월 최초로 구축된 기상청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기상자료 및 기후자료, 영상자료 등 날씨와 관련한 정보와 기상행정 및 조직 안내 등 기상청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발전해 왔다.

국민과 소통하는 기상청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과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환경 추세 및 홈페이지 이용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휴대전화, 태블릿 등 개인 모바일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를 별도 구축하였고,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자와 웹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스 데이터도 함께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기상청 홈페이지는 해마다 방문자가 크게 늘어 지난 2016년 연간 방문자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2억 5천여 만 명을 기록하는 등 정부기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사이트로 자리 잡고 있다.

※ 전체 방문자의 약 30%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방문자로 분석

<http://www.weather.go.kr/>



‘날씨누리’로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시작

그러나 위와 같이 높은 방문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메뉴 체계가 일반 기상행정정보와 기상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기상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청 기관 홈페이지와 날씨전용 웹사이트인 ‘날씨누리’를 분리 구축하여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상청 홈페이지 방문자의 95% 이상이 이용하는 날씨 관련정보만을 모은 ‘날씨누리’는 기상 예·특보, 날씨 영상, 지진 황사 및 기후 관측자료 등 모든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상청은 ‘날씨누리’가 국민들에게 보다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날씨정보 이외 기상행정정보는 이전처럼 기상청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날씨누리’

앞으로 기상청은 날씨전용 웹사이트 ‘날씨누리’를 더 많은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사이트와 함께 웹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지진 및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에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는 국민의 기대 및 요구에 부응하여 인터넷 발전 기술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및 서비스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웹사이트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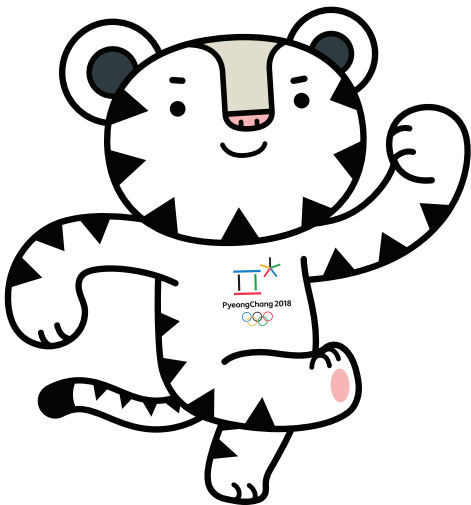


기상청이 함께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상지원!



기상서비스정책과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는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15종목 102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동계패럴림픽대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6종목 80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1년 7월 6일 열린 제123차 IOC 총회에서 과반 표를 획득하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최초의 동계올림픽 무대가 펼쳐진다. 평창에서는 개·폐회식과 대부분의 설상 경기가 개최되며, 강릉에서는 빙상 종목 전 경기가, 그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 기획단』을 구성하고(2011.7.20), 『기상청-2018 평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간의 업무협약(MOU) (2012.6.4.)을 체결하여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상세 예측정보 제공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에는 기상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단』을 구성하고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보와 관측,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상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2016년 4월 『기상청-2018 평창대회조직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두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장별 기상관측망 구축, 산악기상 전문예보관 양성, 경기장 수치예보 가이드스 개발,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 체계 구축 등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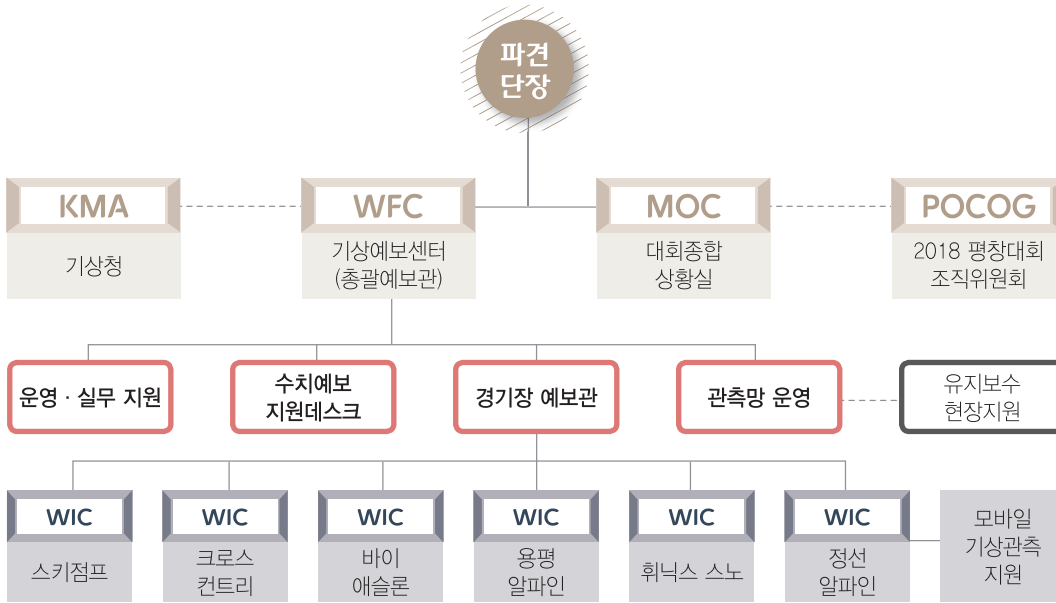
경기장 기상관측장비 구축 현황(총 10종 107개)

구분	기상관측장비 종류	수량	설치 지점	
경기장 내 기상관측망	통합기상관측센서	25개소	스키점프(5개소), 바이애슬론(2개소), 크로스컨트리(2개소), 슬라이딩(3개소), 용평 알파인(4개소), 정선 알파인(4개소), 휘닉스 스노(크로스(2개소), 슬로프스타일(2개소), 모글(1개소))	
	시정현천계	25개소		
	자동기상관측장비(AWS)	4개소	스키점프, 발왕산, 태기산, 정선경기장 하부	
	초음파식 풍향-풍속계	4개소		
	운고계	4개소		
	레이저식 적설계	4개소		
		적설감시 CCTV	2개소	스키점프, 발왕산
		이동형 AWS	3개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강릉올림픽파크, 올림픽슬라이딩센터
		설면온도계	12개소	스키점프(1개소), 크로스컨트리(3개소), 바이애슬론(2개소), 용평 알파인(2개소), 휘닉스스노(2개소), 정선 알파인(2개소)
	경기장 밖 인근 기상관측망	자동기상관측장비(AWS)	6개소	대기리, 사북, 어흘리, 담산, 방산, 신남
초음파식 풍향-풍속계		6개소		
		적설감시 CCTV	9개소	용평, 면온, 내면, 대화, 북평, 대기리, 안흥, 임계, 청일
		도로교통기상관측장비	3개소	어흘리, 유천리, 삼교리

2017년 11월 1일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됨에 따라, 기상청은 성화의 날짜별 이동경로 대표지점에 대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2018 평창대회 기상지원을 개시하였다. 2018 평창대회 기간에는 원활한 대회 운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안전한 경기 관람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월 29일부터 기상서비스 인력(올림픽 36명, 패럴림픽 20명)을 파견(단장 박연연)하여 기상관측 전문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기장 현장에서 생생한 기상정보를 신속·정확히 지원하게 된다.



기상지원단 파견 조직도



기상서비스 인력 구성

인력 구성	대회	동계올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
기상청 단기지원		36명 ¹⁾	20명 ²⁾
기상관측 전문자원봉사자		34명	21명
조직위 기상기후팀		3명	3명
총 원		73명	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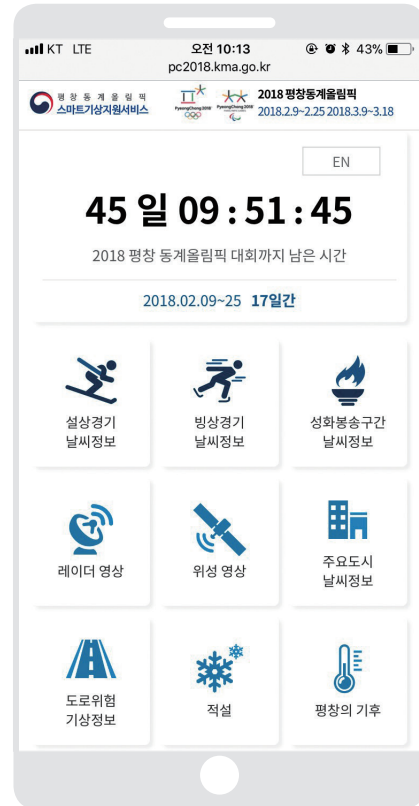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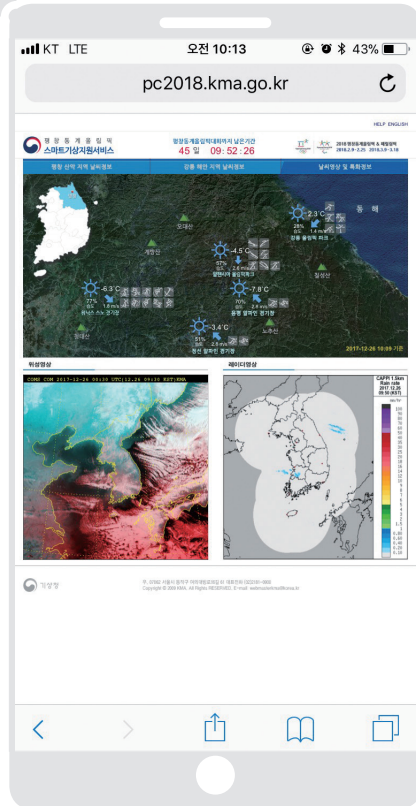
1) OG 36명 : 예보지원단 31명, 수치예보 지원 1명, 기상관측망 운영 1명, 모바일기상관측 지원 2명, 파견단 행정지원 1명

2) PG 20명 : 예보지원단 16명, 수치예보 지원 1명, 기상관측망 운영 1명, 모바일기상관측 지원 2명

또한, 6개 경기장(스키점프센터, 바이애슬론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옹평알파인경기장, 휘닉스스노 경기장, 정선알파인경기장)에는 기상정보센터(WIC, Weather Information Centre)를 설치하여 경기장 기상실황을 감시하고, TCM(Team Captians' Meeting) 예보 브리핑, 기상정보 전달 등 경기위원, 경기 매니저와의 현장 소통 역할을 수행한다.

예보, 관측자료 외에도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 주요도시 날씨정보 등 2018 평창대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기상정보들이 생산된다. 모든 기상정보는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pc2018.kma.go.kr>)와 모바일웹(<http://m.pc2018.kma.go.kr>)을 통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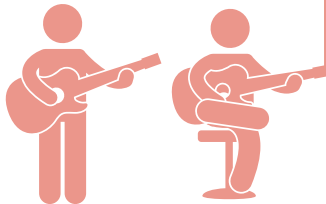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홈페이지(좌)/모바일웹(우) 메인화면



동계올림픽은 겨울철 산악지역에서 개최되고, 대다수 경기가 야외에서 진행돼 기상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기상 상황이 경기 진행, 경기 기록 등 대회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흥행도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지원함으로써, 2018 평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PYEONGCHANG

통기타 선율로 사랑을 전하는 '문화꿈터' 이야기



일요일 오후 2시, 제주국제부두에 가면 통기타 선율과 오카리나 소리가 들린다. 그곳 한 모퉁이에서 공연 중인 단체는, 거리 공연을 통한 기부 활동 모임 '문화꿈터'이다. 나 또한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꿈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아름다운 제주도와 문화꿈터

'문화꿈터'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이뤄진 모임으로, 2016년 말에 3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1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저 음악이 좋고 통기타가 좋아서 인연을 맺게 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의미도 있을 순 없을까?' 고민하다가 모두의 뜻을 모아 백혈병소아암어린이 지원을 위한 자선 공연을 제주국제부두 한 모퉁이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열기로 하였다. 일 년에 1,5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라 교통수단이 항공과 배밖에 없다. 관광객 중 대다수는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도를 찾지만, 제주국제부두를 통해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꽤 많다. 제주국제부두는 제주도로 내려온 관광객들이 여행을 마친 후 돌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 몸도 마음도 피곤할 만한데, 어떤 일인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고 즐거운 모습이다. 아마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지 않나 싶다.

사랑은 통기타 선율을 타고

제주국제부두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으면,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런저런 일을 볼 수 있다. 어떤 관광객은 '연주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여객터미널 안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 초콜릿 등을 직접 손에 쥐여주고 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백혈병소아암어린이를 위해 직접 성금을 넣기도 한다. 한 번은 우리 문화꿈터 회원들의 통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하면서 5만 원이란 거금을 모금함에 넣는 분도 있었다. 단체 관광객들은 우리 앞을 지나가다 통기타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 한바탕 춤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일화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람은 박정훈이라는 분이다.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날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을 모금함에 넣고 사라졌다. 아마 우리의 공연이 백혈병소아암어린이 지원을 위해 쓰인다는 걸 알고 기부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의 열띤 참여와 성원 덕분에, 우리는 공연 활동으로 십시일반 모은 수익금 460만 원을 지난 1년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백혈병소아암어린이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에게 전액 지원할 수 있었다.



고종만
제주지방기상청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하여

이 모든 공을 거리 공연에 함께한 관광객들에게 돌리고 싶다. 관객 없는 공연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삶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돌아보자면, 야외 공연은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 기타 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사서 하는 고생은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는 순간, 눈 녹듯 사르르 없어진다.

우리 '문화꿈터' 회원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공연을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공연 준비를 위해선 함께 모여 연습할 공간이 필요한데 변변한 연습실 없이 회원의 가게 한구석에 모여 연습하고 있고, 사비를 들여 음향 장비를 구입해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좋고,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더 좋다. 이로써 너, 나,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또한 짧은 일 년 동안 성장하는 '문화꿈터' 만큼 한 단계 성숙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공연을 일요일 오후에 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에게겐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라는 걸 가족들이 이해해줘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창립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문화꿈터'의 존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꿈꾸는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작은 날갯짓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 모습은 다음카페에 가면 볼 수 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우리 문화꿈터!



영남에 발을 담그다



맞벌이와 육아로 정신없이 지낸 지난 1년, 아직은 우리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여행다운 여행을 하지 못했다. 사실은 '우리 집을 두고 왜 다른 데서 자느냐'는 나의 이상한 고집 때문에 아내의 여행 욕구를 억눌렀다고 해야 맞겠다.

하지만 2017년 가을, 이번에는 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여행지는 반의 반나절 만에 고른 '진주 남강유등축제'였다. 우리는 가는 길에 남해에서 하룻밤 묵고 주변도 돌아보고 올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와 펜션촌의 어울림

목포에서 두 시간여를 달려 남해군에 입성했다. 바다를 상상하며 달렸지만, 눈과 발이 즐비한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면서 여기가 남해(南海)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다. 하지만 이내 들어선 해안도로는 설렘을 주기에 충분했다. 탁 트인 바다와 떠있는 대형 선박들까지, 좁은 바다를 주로 보는 완도 촌놈에게도 이런 바다는 흔치 않은 풍경이었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예약한 펜션까지 30분 정도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形形色색 늘어선 펜션촌의 풍경은 정말 감탄스러웠다. 이전 바다여행에서 보지 못한 풍경들에 벌써 이번 여행이 만족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남해 하면? 독일마을!

이튿날 아침 일찍 펜션에서 나와 진주로 가는 길에 독일마을에 들렀다. 독일마을은 1960년대 간호사나 광부 등으로 독일에 파견됐던 교포들이 한국에 돌아와 고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을이다. 아담한 주황색 지붕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이국적으로 보였고, 파독 전시관에서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로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애잔함이 묻어났다. 독일마을답게 독일맥주를 맛볼 수 있고, 심지어 10월에는 맥주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 그날은 운전 때문에 냄새밖에 맡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깊은 뜻이 담겨있는 유등축제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은 유등축제였기에 기대를 잔뜩 했다. 지인들의 말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유등축제, 만원의 입장료가 아깝지 않도록 누리주리라 다짐했다.



송인철
무안공항기상대



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서 기원하고 있다. 1592년 10월, 총무공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을 침공한 2만 명의 왜군을 3,8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병력으로 크게 무찔러 민족의 자존을 드높인 것이 '진주대첩'이다. 이곳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 때, 성 밖의 의병이 군사신호로 풍등을 하늘에 올렸고,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였다. 이뿐만 아니라, 진주성 내에 있는 병사들과 사민(士民)들이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진주남강 유등은 김시민 장군의 군사신호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의 도하 저지 전술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두루 사용되다가, 1593년 6월, 통한의 '계사순의'가 있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쓰임새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나라와 겨레를 지극정성으로 보전하고 태산보다 큰 목숨을 바쳐 의롭게 순절한 병사들과 백성들의 매운 얼과 넋을 기리는 행사가 된 것이다. 이후 세세연년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꼭 다시 한번

축제장에 막 도착했을 때는 낮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저녁이 되어 색색의 유등에 불빛이 하나 둘 들어오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다. 진주성 안에는 임진왜란을 묘사하는 유등이 있고, 그 아래 남강에는 다양한 주제의 대형 유등이 빛나고 있었다. 하나하나 그 묘사력과 완성도가 뛰어나 놀랐다. 특히 그 규모가 엄청나서 호기롭게 모든 유등을 돌아보고 주막에서 맛있는 것도 즐기려고 했던 우리는 이내 지쳐 유등만 보고 집으로 향했다. 아쉬운 순간이었다. 나에게 이 여행이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가' 일 것이다. 이번 영남 여행은 그 끝에 꼭 다시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엔 부모님과 다시 찾아야겠다! 🍵

돌고 돌아 찾은 곳!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다

고등학교 때 나는 천체 관측 동아리 '한얼'에서 활동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성단이나 성운, 해와 달 사진을 찍었다. 진주에 있는 다른 학교동아리들과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관측회를 열기도 했다. 그때는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하늘 보는 것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왜 취미로만 여기고 하늘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려는 생각을 못했을까?



박지만
7급 신규자과정 수료자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대학에서 유전공학과를 졸업한 후, 의과전문대학원이나 약학편입 등을 준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 생물 관련 업종이 나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31세란 늦은 나이에 준비하던 편입공부를 포기했다. 울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국가기상위성센터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이 기상청 공채 소식을 알려주었다. 서점에서 대기과학과 기상학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드디어 찾은 느낌이었다. 꼭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기상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상학은 내 전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낯선 학문이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방역의 기상직 공무원 학원을 찾아, 2016년 5월부터 학원을 다니며 그해 8월에 7급 시험을 보았다. 물론 3개월 만에 합격하기는 무리였지만, 그 후로도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해 주말마다 예보관 기술서로 함께 공부했다. 하지만 비전공자들이 모인지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할 사람이 없어 한계가 느껴졌다.

가뭇의 단비 같았던 기상청 수업

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2016년 가을학기 학점은행제를 신청한 나는, 수업을 듣기 위해 기상청을 방문할 때마다 '나도 이곳으로 출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기상학 공부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해양기상학, 대기오염, 미기상학, 예보법 등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었던 기상청 학점은행제는 가뭇의 단비와 같았다. 2017년 봄학기에는 열대기상학, 중규모기상학, 대기대순환, 수치예보 수업을 들었다. 시중의 책에선 볼 수 없었던 최신이론을 들으며 놀랐고,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의 생생하고 열정적인 강의에 감동했다. 강사님들이 내는 과제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내가 가진 지식도 점검해 볼 수 있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대기과학과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라, 나와 같은 비전공자 수험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라배움터 사이버 강의에서도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기상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좋았다. 기상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들 수업을 꼭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또한, 유튜브에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단편날씨강의가 있어, 복극진동과 같은 생소한 개념들을 배울 수 있었다. 전공학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기상인이 된다는 것

열심히 공부한 결과, 2017년 4월에 치러진 9급 시험에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험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공직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다.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지만 덕분에 나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낙담하지 않고 7급 시험 준비를 곧바로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생각을 혼잣말로 말해보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마음도 다져보면서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 결과, 7급 시험합격 후 면접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하였다. 면접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시험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최종 합격 후의 기쁨도 잠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이에 비해 사회 생활경험이 많이 없는 나에게 2주간의 교육기간은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2주간의 신규자 교육은 7급 합격자뿐만 아니라 기상청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과 함께 듣게 되었다. 그분들은 낯을 가리는 성격인 나에게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셨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교육을 통해 기상청 부서에 대한 소개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아보던 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상청 직원분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기상청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곧 그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뚫다.

열정과 간절함으로!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관측정보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기상청의 1순위는 예보를 생산하는 일이고, 예보의 첫 단계는 정확한 관측정보의 생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관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전문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 2주 동안 보고 느낀 것은 기상청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세분화된 부서 간의 협업으로 하나의 정보 전달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분들과 함께 언젠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상전문가가 되고 싶다.

기상청 입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구해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상학 책을 살펴보았다. 절판된 책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서울시내 도서관을 뒤졌다. 판매하지 않는 기상청의 책을 보기 위해 기상청 내부에 있는 기상도서관도 방문했다. 일반인이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앞으로 실무수습 전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내게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장점은 살려서 이 열정과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멀리멀리 돌아 찾은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좋아하는 길이니까.☀



어색하지만 설레는 실무수습의 날들



실무수습의 시작

지난여름, 9급 신규자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실무수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하루 빨리 진정한 직장인으로 거듭나 기상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 출근 날, 나는 밤새 설레어 잠 못 든 까칠한 얼굴로 기상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7층 관측정책과에 배치되어 실무수습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다. 지금도 어색함을 다 벗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첫 출근 날의 나는 정말 어색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수습 기간 동안 쓰려고 산 다이어리 첫 장에도 그 증거가 담겨있다. 과거의 내가 '화장실을 못가겠다... 조용히 가볼까...' 라고 써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내가 꾸벅거리며 인사를 드렸을 때도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 주무관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으로 답해주신 덕분이었다. 그렇게 나는 설렘과 어색함으로 뒤섞인 실무 수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관측정책과에서의 경험

관측과에 오게 된 나의 운명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다만 확실한 것은 신규자 교육 과정을 받을 때 관측업무에 가장 관심이 갔다는 것이다. 관측기기와 기기 도입과정에 대해 알고 싶었던 나는 이런 관심을 토대로 관측정책과에 오게 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관측정책과는 지상/표준화팀, 해양/고층팀, 시스템팀, 행정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팀에 소속된 분들이 '관측자료 활용 및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다. 나는 해양/고층팀에 속하게 되어, 사무관님과 주무관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또, 팀 회의에 참석하면서 해양/고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해가는 중이다.



손수현
관측정책과



수습 기간 초반에는 매주 제출해야 하는 주간 수습보고서를 쓸 때 ‘~를 했다’, ‘~한 감정을 느꼈다’와 같이 서술로 작성하여 멘토 주무관님을 당황하게 하는 생 초보 공무원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내 생애 첫 출장

10월 23일 첫 출근, 그리고 10월 30일~11월 1일 첫 출장. 나는 그렇게 제주도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스케줄이었지만 무척 설렜다. 내 평생 출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줄이야. 나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나 제주도 ‘출장’ 간다고, 겨울철 방재기상 대응 관측업무 점검을 위한 출장이었는데, 책에서만 보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연안방재관측장비 그리고 파랑계를 직접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무관님께서 기상 관측 기기들이 어떠한 원리로 기상을 관측하는지 설명해주신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관측 기기에 대한 막연함도 없앨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제주 지방 기상청에 들렀는데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와의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본청과 지방청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신규자로서 단단한 다짐

실무수습을 시작한 지 두 달. 나는 아직도 내가 기상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기상청 직원 분들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도 가끔은 내가 먼저 함께 일하는 분들께 이야기를 건네고 농담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아, 이제는 이곳이 조금 편해졌나 보다. 내가 잘 적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다 관측기반국과 다른 기상청 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일 것이다. 긴 공직 생활을 시작함에 앞서 주어진 실무 수습이라는 기회가 조직적응과 업무파악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맞춰 나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하는 기상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진주 남강 옆 헌책방

찬 바람을 뚫고 책방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풍겨와 마음이 편해졌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계절의 변화에 마음이 헛헛했는데 책방은 여전한 것 같아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정서훈
동훈서점 책방지기

헌책방 손님과 할아버지

동훈서점이 진주 남강 근처에 자리를 잡은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 1, 2년 사이에 간판이 바뀌는 변화가의 풍경을 생각하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미련스럽게 버틴 탓도 있다.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이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0년 혹은 20년 가까이 꾸준히 서점을 찾아주는 손님들 덕분이 크다. 손님들의 연령대는 다양하긴 하지만 할아버지 손님이 가장 많다. 내가 서점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인 분도 계시고, 몇 년을 줄곧 찾아오시다가 어쩐지 이제는 볼 수 없는 분도 계신다.

죽이는 책

책방에 올 때마다 “어이 사장, 좋은 책 있나?” 라고 꼭 물어보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나는 “좋은 거 있지예” 라며 호방한 액션물이나 찐한 로맨스로 한 권씩 권해드린다. 주로 한국소설이다. 외국소설을 추천했다가 “이름이 누가 누군지 망구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하셔서 그렇다. 할아버지가 “저번 거는 싱겁더라” 하시면, 나는 “이번에는 찐합니다”라며 한 권을 뽑는다. 제목이 자극적이거나 책 소개에 ‘운명적인 만남과 비극적인 사랑이 온몸을 전율시킨다’와 같이 적혀 있으면 합격이다. 누군가에게는 철학 서적이거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서가 좋은 책일 테지만, 누군가에게는 책장이 잘 넘어가는 무협지나 로맨스 소설일 수 있다.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에서 광수와 민주, 혹은 희철과 선애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편지 쓰기

할아버지 손님 하니까 편지 쓰는 법에 대한 책을 찾으시던 분도 생각이 난다. 군대에 간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는데 글을 잘 모른다고 했다. 옛날이야 손편지를 자주 썼기에 그런 책이 있었겠지만, 요즘에 어디 그런 종류의 책이 출판이나 되어 나올까? 이럴 때 헌책방이 힘을 발휘한다. 서점을 뒤져보니 1970년대에 나온 <가정 편지투백과> 라는 책이 있어 권해드렸다.



책에는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보였고, 역시나 사랑 고백에 관한 부분도 있었다.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 부분을 보여드렸다. 며칠 후 그 할아버지의 손자는 군대에서 난생처음 할아버지에게 안부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첫인사는 책에 나온 그대로일 것이다. ‘손아 잘 있느냐.’ 그리고 마무리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거라.’ 가운데 들어갈 부분은 손자에게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나 군대에서 당부해야 할 사항 같은 걸 적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다. 이제 할아버지의 편지 쓰는 시간이 괴롭지 않겠지.

편지 쓰기에 재미 들린 할아버지는 아들이나 며느리 어찌하면 할머니에게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상상을 좀 더 이어본다. 할머니에게 평생 “밥은, 아(이)는, 자(자)요 세 마디만 했을 할아버지가 <가정 편지투백과>를 뒤적이며 편지를 쓰는 상상. 시작은 이럴 것이다. 순심에게. 혹은 부인에게. 혹은 할머니에게. 그리고 계절인사가 들어가겠지. 요즘 날씨가 많이 사나워졌소. 추운 겨울에 몸은 상한데 없소. 나는 당신 덕분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소.

25시 헌책방

책방 문 여는 소리에 나는 상상에서 깨어난다. 전도하러 왔으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전단지를 주고 간다. ‘죽은 사람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늙고 죽을까요?’ 평소라면 곤장 버렸을 텐데 지금은 읽어본다. 전단지 내용과는 상관 없이 답이 없는 질문을 혼잣말로 해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상상한다. 헌책방은 때때로 상상 속에 빠지기에 딱 좋은 장소가 된다. 퇴근을 준비하며 서점의 불을 끈다. 문을 잠그고 자전거를 탄 후 집으로 향한다. 추운 겨울밤 책방 앞은 지나가는 차도 없이 한산하다. 어두컴컴한 책방의 책꽂이에서 책이 하나 둘 빠져 나간다. 몇 년 동안 어떤 일인지 오시지 않던 손님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없는 불 꺼지고 문 닫힌 책방에도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는 생전에 만날 수 없는 그 손님들이. 책과 함께라면 그분들도 왠지 외롭지 않을 것 같다. 📖



행복을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 「꾸삐 씨의 행복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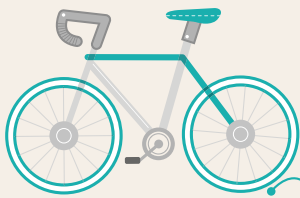
글 · 사진 프랑수아 르로르 | 오래된미래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 ‘꾸삐 씨의 행복 여행’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2014년 영화로도 개봉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책이기도 하다. 책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파리 중심가 한복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꾸삐는 세상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이 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의 진료실은 그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로 넘쳐났다. 그 환자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 사랑의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점성가,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의사들이었고, 모두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겼다. 꾸삐도 ‘과연 나는 행복한가’ 자문한다. 꾸삐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고는 행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진정한 처방을 하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난다.

가장 먼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에서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 첫 번째 배움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 배움을 느낀다. 꾸삐가 여행을 하는 도중 느낀 행복의 배움에서 이 두 깨달음이 가장 나의 마음에 와 닿았다. 중국에 도착해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젊은 여자 잉리와 깨달음을 많이 얻은 노승을 만나 행복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또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은 사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아프리카에서는 강도에게 납치를 당했다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현재 삶의 가치를 한번 더 만끽하게 된다. 행복을 계산하는 사람,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를 만나면서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깨닫는다.

마지막 여행에서 다시 노승을 찾아가 자신이 현재까지 배운 행복에 대해 적은 노트를 노승에게 보여준다. 노승은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들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라고 과찬했지만 꾸삐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이유는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



오병찬

수도권기상청 관측과



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맨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스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목표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꾸삐의 질문에 노승은 “만일 당신이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더구나 당신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며 한바탕 특유의 웃음을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요. 그렇게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꾸삐는 행복에 대해 고찰해보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진료를 시작하면서 여행에서 느꼈던 깨달음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더 진심을 다해 진료했고, 환자들도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점차 치유되었다.

이 책을 읽어보는 참에 상영되었던 영화도 함께 보았다. 줄거리는 대략 비슷했지만 영화 특유의 임팩트를 넣기 위해 각색을 좀 하고 주인공 꾸삐는 좀 더 활동적이고 쾌활했다. 영화의 중간 중간에 꾸삐의 어린 자아가 나오는데, 여행을 다 마친 뒤 행복에 대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꾸삐의 성장한 자아가 나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행복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다녀온 후에 더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노승의 말처럼 ‘행복한 삶은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나에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장이 고맙고,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는 직장 동료들이 있어 행복하고, 특히 나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아내와 아들, 딸에게 고맙고 행복하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7월 우리 가정에 예쁘고 귀여운 딸을 낳아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

겨울왕국, 홋카이도 자유여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를 반겨준 것은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눈이었다. 진짜 겨울왕국에 온 것처럼 온통 새하얀 풍경으로 눈부셨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숙소가 있는 삿포로까지 가려면 JR 쾌속열차를 타고 도시로 이동해야 했다.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건물과 차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고, 열차 내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일본 최북단의 섬, 설국이라 불리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민경선
인천시 동구청 자치행정과



삿포로에서는 삿포로 맥주를 마셔보자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열차 도착 시각이 두 배 넘게 지체되었다. 평소라면 짜증이 났겠지만, 따뜻한 기차 안에서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삿포로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향한 곳은 삿포로 맥주박물관이었다. 북극성을 상징하는 별과 '삿포로비루'라고 새겨진 굴뚝, 3단으로 쌓인 나무맥주통, 메이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저녁 조명을 받아 웅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1층 라운지에서 유료샘플링을 진행하고 있으니, 맥주를 좋아한다면 한번 들러도 좋을 것 같다. 참, 홋카이도에서만 한정으로 제조·판매한다는 '삿포로 클래식'은 꼭 마셔보길 강력히 추천한다.

크리스마스 마켓과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삿포로 오오도리 공우언에서는 겨울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대." 옆자리 회사 동료의 한마디에 나는 뭔가에 홀린 듯 홋카이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삿포로와 원헨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원헨에서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일본식으로 꾸며놓은 것이다. 12월 24일까지 한 달간, 독일 분위기의 아기자기한 부스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삿포로 맥주와 소시지 등 먹을거리도 판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아 행사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공원 안쪽에는 일루미네이션이 설치되어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삿포로의 랜드마크인 테레비 타워를 배경으로 나무는 형형색색 전구 옷을 입고, 도심의 빛나는 별은 우주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전구 터널과 눈송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내 마음도 함께 행복해졌다.



러브레터 촬영지 오타루

여행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대가 컸던 곳은 홋카이도 서부에 위치한 오타루였다.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 유명해서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다. 삿포로 역에서 JR 열차를 타고 미나미오타루 역으로 향하는 길에 펼쳐진 하얀 눈과 시리도록 푸른 바다는 겨울의 낭만을 느끼게 해주었다.

메이지 말기의 건축물이 잘 보존된 오타루는 일본스러운 듯 이국적이고, 동화처럼 아가지기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유리공예점과 디저트 가게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 설레었다. 오타루의 명소인 오르골당은 오르골을 전시 판매하는 상점으로 내부가 목조로 이루어져 있어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독특한 오르골들이 저마다 맑은 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장면이, 마치 장난감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풍경이어서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홋카이도의 거점 무역항이었던 오타루는 선박들의 화물 하선작업을 위해 운하를 건설했는데, 지금은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어둠이 내려앉은 오타루 운하의 물에 비친 가로등 불빛과 수목이 쌓인 눈,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창고를 개조한 레스토랑과 펍이 제법 운치 있는 풍경을 자아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소소한 볼거리가 있고 낭만적인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오타루 여행이었다.

29년만의 대폭설 한가운데 서다

홋카이도 여행 내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 첫날에는 비행기가 착륙을 못 해 공중에서 계속 맴돌았고, 오타루 여행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으며, 무릎까지 쌓인 눈 때문에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눈이 많이 내렸지만 체설도 잘 되어있고, 사람과 차도 큰 동요 없이 본인이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원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현지인들의 대응력이 굉장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홋카이도에서도 기록적인 폭설로 29년만의 대 폭설이었다고 한다. 적설량이 65cm나 되어 다수의 비행기가 결항되었고,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간발의 차이로 일정대로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눈이 많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는데 체감온도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내륙의 건조한 칼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 한국의 겨울은 매섭고 차가운 느낌인데 홋카이도의 겨울은 오히려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 같은 계절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겨울나라에서의 여행은 일상에 지친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안녕 나의 Winter Wonderland! ❄️

크리스마스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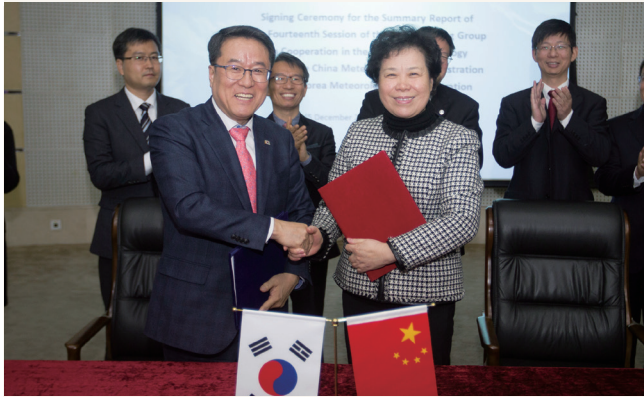


오타루 거리에서



오르골당 내부모습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중 기상협력 (12월 5일)

기상청은 중국 기상청의 초청으로 평창동계올림픽(2018), 베이징동계올림픽(2022)의 성공을 위한 '한중 기상협력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탐방_평창동계올림픽 (12월 6일~7일)

기상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하여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탐방을 실시하였다.



기상청 '해피해피 캠페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12월 6일)

대변인실은 지난 여름, 사회복지단체(연탄은행밥상공동체), 민간기업(농심) 등과 협업하여 진행한 2017 폭염피해예방 '해피해피 캠페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상캐스터 소통 간담회(12월 12일)

국민과 최접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상캐스터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기상캐스터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Photo News



나이지리아 기상청 대표단 방문 (12월 12일)

나이지리아 기상청 대표단이 우리 청의 다양한 기상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두 기상청은 기상·기후·지진·정보통신 등의 업무 소개와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 기상협력 자문회의 (12월 19일)

남북한 기상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북한 동향에 따른 기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 기상협력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날아다니는 종합기상관측소, '기상항공기' 취항식 개최 (12월 20일)

정부와 국회, 전문가 및 언론 등 각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상항공기 취항식'을 김포 공항에서 개최했다.



겨울철 한파 피해예방 캠페인 진행 (12월 26일)

남재철 기상청장은 서울 명동에서 구세군과 함께, '겨울철 한파 행동 요령'이 적힌 핫팩 1만개를 시민들에게 기증하며 한파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1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8년 2월호의 단어는 <졸업>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시작>

이현희, 인천 /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단 한 번의 순간
최은숙, 경기 / 신생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 조심스럽고,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
양경순, 울산 / 100m 달리기 출발점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초초함과 설렘이다.
최지연, 인천 / 분주하게 하루를 여는 새벽시장처럼 활기가 넘치는 것이다.
백귀혜, 장성 / 용기 있는 자만이 내딛을 수 있는 한 걸음!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1.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대한민국의 올림픽으로,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이름은?

- ① 2018 한국동계올림픽대회 ② 2018 강원동계올림픽대회
③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④ 2018 강원도동계올림픽대회

1. ①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2. ② 마라도

2. 1592년 진주대첩 때 군사신호로 쓰인 풍등과 군사전술로 쓰인 유등이 유래인 축제의 현재 이름은?

- ① 진주남강축제 ② 진주남강유등축제 ③ 진주남강세계등축제 ④ 국제남강유등축제

지난달 퀴즈 정답자

박유미(안양), 박차백(구미),
이은형(서울), 조정례(광주),
김순전(창원)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퇴직	'17. 12. 31.	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우지	
전보	'18. 1. 1.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조정과)	김성균	
복귀	'18. 1. 1.	기후과학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정)	신도식	
명예 퇴직	'17. 12. 31.	기상청	부이사관	현동식	
			기술서기관	이은범	
			기술서기관	이정석	
			서기관	이종하	
			기술서기관	조지대	
			기술사무관	심철우	
			기술사무관	심성보	
			기술사무관	이기봉	
			기술서기관	최주권	
			기술서기관	장영철	
			기술서기관	신기창	
			기술서기관	하정환	
			기술서기관	박영원	
			방송통신사무관	박준천	
			기술사무관	이승철	
			기술사무관	허태근	
			기술사무관	송진숙	
			기술사무관	이상수	
휴직	'18. 1. 1.	기상청	기술연구관	전영선	
복귀	'18. 1. 1.	예보국	총괄예보관	김영화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기상서기관센터장	정영환
전보	'18. 1. 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관	서기관(과장)	임하균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고정석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8. 1. 1.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	기술서기관(지청장)	전주환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유근기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	서기관(과장)	박종수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서기관(과장)	유인수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기술서기관(지청장)	정광호
전보	'18. 1. 1.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기술서기관(과장)	선지홍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기술서기관(과장)	김동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기술서기관(과장)	문재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기술사무관	박성진
		영향예보추진단	신설준비팀	부이사관	손승희
파견 근무 지정	'18. 1. 1.	예보국	예보분석팀	기술사무관	서태건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방송통신사무관	김하진
		수도권기상청	관측과	기술사무관	류수호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기술사무관(대장)	김승관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사무관	유종근
전보	'18. 1. 1.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기술사무관	황성현
		항공기상청	김해공항기상대	기술사무관(대장)	윤정민
		항공기상청	항행기상팀	기술사무관(팀장)	정영아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 데이터센터	기술사무관	이기선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술사무관	양승만
발령	'18. 1. 1.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기술사무관	박동준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사무관	박인태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사무관	이병철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사무관	이만대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기술사무관	이만규
복직	'18. 1. 15.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기술연구관	이해진

시끌벅적 하늘사랑

박유미 안양

해외 동향 <중국, 푸른 하늘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따뜻한 봄에 야외 나들이를 계획했다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로 인해 외출을 취소한 경험이 많습니다. 겨울이면 중국의 화석연료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또한 야외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중국정부가 측정 범위를 훌쩍 넘어버리는 자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더 좋은 측정장비와 강한규제로 중국 공기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봄의 황사, 겨울의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현희 인천

‘달무리’, ‘햇무리’와 같은 자연 현상은 직접 목격한 경험이 없어 막연히 단어의 의미만 알고 있었는데, 하늘사랑 12월호에 실린 <생기발랄! 날씨가야기>를 보니 무척 신비로우 한참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육면체 구조의 얼음알갱이에 의해 빛이 굴절되어 생기는 ‘대기광학 현상’이란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와 같은 자연의 조화를 보며 얼마나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는지 상상이 되더군요.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현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 얼마나 황홀할까 싶은 설렘에 앞으로는 하늘을 좀 더 자주 올려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형 서울

12월호 하늘사랑 2017 기상산업대상 ‘대상’을 받은 ‘신일산업’ 기사 내용 잘 읽었습니다. 평소 신일산업의 가전제품을 애용하는 1인으로서 신일의 수상 소식이 더욱 반갑고 좋더라고요. 신일산업은 오랜 전통과 기술을 인정받은 회사답게 매년 사용 편의성과 제품 성능을 강화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기상정보를 도입해서 수익을 낸 만큼,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선풍기를 기증하기도 하고, 쪽방촌을 방문해 무상점검과 무상교체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기상산업대상을 받은 기업답게 모범을 보이는 기업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품질로 인정받은 1등 신일’, ‘이웃에 봉사하는 1등 신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귀혜 장성

지난해처럼 한강이 빨리 얼어버린 게 71년만의 일이라는 뉴스를 보며, 이번 겨울은 유독 길고 춥겠구나 싶어 몸과 마음이 다 움츠러들더군요. 그런데 이런 강추위를 이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기상청 단비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만 생각하며 엄살을 떨었던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게 하고, 연탄 천장의 무게를 이기게 한 비결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늘사랑을 통한 오늘의 배움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정책목표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



1 기상청 방재업무 담당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非법정 교육으로 방재교육 수행 ----->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방재기상교육) 실시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기상법 35조
(2018년 4월 19일 시행)

2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 www.weather.go.kr 제공

- 기상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기상행정정보 및 날씨정보 제공 -----> ● www.weather.go.kr 을 통해 종합날씨정보 제공
- 첫 화면 경량화 및 메뉴 구성 개선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기존 www.kma.go.kr 은 기상행정정보 제공
(2017년 12월 27일 시행)

3 상세한 바다날씨 정보 제공

- 12시간 간격의 해구별 예측정보 제공 -----> ● 3시간 간격의 해구별 예측정보 제공
● 해구별 예측정보 제공 요소 추가 : 5종 (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풍향, 풍속)
→ 8종 (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풍향, 풍속, 시정, 수온, 해상날씨)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 날씨 > 바다날씨 > 해상예보 > 해구별 예측정보
(2018년 5월 시행)

4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서비스 제공(*17) -----> ● 기상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정보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문자서비스 제공 등 더위체감지수 정식 서비스 운영
(2018년 5월 시행)



눈송이

하늘에 숲이 있대요
우리가 속삭인 비밀이 모여드는 숲

숲에 닿은 비밀들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쟁그랑쟁그랑 유리알 수다를 떨면

그들의 비밀을 엿듣던 거인은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예취!

하얗게 놀란 비밀들이
푸르르 날아가
우리에게 포슬포슬 내려오는 거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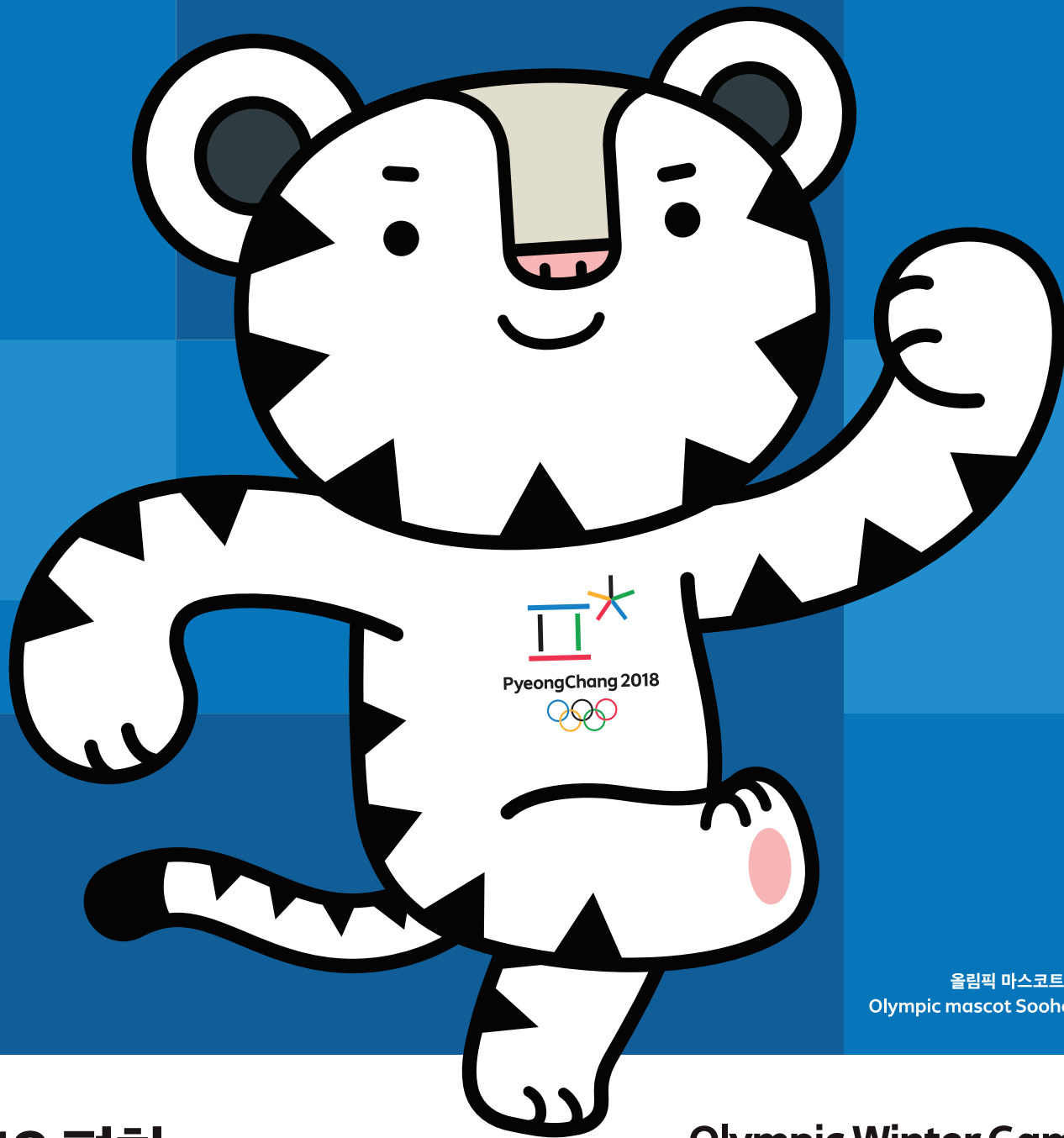
글: 조희애
사진: 임종훈, 〈눈꽃과 운해〉, 2017 계절사진상 수상작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PyeongChang 2018™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Olympic mascot Soohorang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